

# 『송천필담』의 明代 淸言 수용 양상

한영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hanyq@skku.edu

I. 머리말

II. 『송천필담』과 명대 청언

III. 『송천필담』의 청언 수용 양상

IV. 맺음말

## I. 머리말

필기잡록은 문인 학자가 생활하면서 직접 견문한 내용이나 독서를 통해 접한 다양한 지식·정보를 자유로운 형태로 기록한 글이다. 즉 사대부 지식인의 생활의식이 낳은 기록물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문사철에 두루 능했던 중세 사대부 지식인의 체험과 독서 편력 및 개인적 관심사, 그밖에 당대의 세태 풍속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잡박하게 기술되어 있다. 심재(沈鏗, 1722-1784)의 『송천필담』 역시 우리나라 및 중국의 역사와 문학, 사상과 예술 및 풍속 세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야담의 측면이나 글쓰기 방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sup>

이 글은 『송천필담』이 지닌 다양한 성격 가운데, 특히 명대 청언의 수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과정에서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필기에 청언이 대거 유입되는 일은 18세기의 필기가 보여주는 새로운 면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송천필담』을 교감 번역하는 과정에서 누차 제기된 바 있다. 최근 간행된 역주본의 해제에서도 심재가 중국 문헌 가운데 만명의 소품문에서 선록(選錄)한 것이 많고 특히 청언소품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sup>2)</sup> 이 점 『송천필담』의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이면서도 또한 만명사조(晩明思潮)의 수용 양상을 필기잡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17세기 허균과 신희에게서 보이기 시작한 명대 청언의 수용이 18세기 필기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심재의 명대 청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1) 『송천필담』을 논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익철, 「『송천필담』 해제」, 『교감역주 송천필담』 1(보고사, 2009); 이동현, 「『송천필담』의 글쓰기 방식과 문예의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2010); 양영옥, 「『송천필담』의 기록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제26호(근역한문학회, 2008); 양영옥, 「『송천필담』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이원걸, 『조선후기 야담의 풍경』(파미르, 2006); 김명선, 「『송천필담』의 승전 연구」, 『어문논집』 제28호(중앙어문학회, 2000); 이원걸, 「『송천필담』 연구」, 『안동한문학논집』 제4호(안동한문학회, 1994); 저자미상, 「『송천필담』 해제」, 『송천필담』(민창문화사, 1994).
  - 2) 신익철, 「『송천필담』 해제」, 위의 책, 35-36쪽; 이동현, 「『송천필담』의 글쓰기 방식과 문예의식」, 위의 논문, 79-93쪽.

허균이 『한정록』에 원평도와 진계유의 글을 신고 『세설신어』를 중시한 데서 단적으로 확인되듯이, 조선후기에 청언을 선록하거나 창작한 문인들은 대체로 위진(魏晉)과 만명의 풍상을 선호하였다. 중세 동아시아의 문예사를 크게 ‘재도(載道)’와 ‘언지(言志)’라는 두 유형의 기복으로 설명한 논법을 따른다면<sup>3)</sup>, 조선후기에 청언을 수용하거나 혹은 창작한 문인들은 대체로 위진과 만명의 풍상을 선호하였다. 위진과 만명은 ‘언지’의 시대를 대표하며, 만명은 위진의 풍도를 재해석하여 고도화시킨 면모가 있다. 그렇다면 『송천필담』의 만명청언 수용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어떤 좌표에 놓이는지가 의문시된다. 또한 심재가 만명청언을 수용하는 성향은 앞 시기의 허균이나 이후의 다른 수용자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청언을 활용한 글쓰기가 『송천필담』을 어떤 성격으로 귀결짓게 했는지도 문제시된다.

## II. 『송천필담』과 명대 청언

청언은 짧은 몇마디 말을 통해 깊은 의미를 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아포리즘(aphorism) 문학이라 칭해지기도 한다.<sup>4)</sup> 청언은 만명 이후 그 창작과 향유가 대단히 성행하였고<sup>5)</sup>, 또 근대 전환기에는 입어당(林語堂) 등에 의해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명말청초의 청언집은 형태 면에서 창작의 경우와 편집된 것으로 나뉘며, 내용적으로는 문학적인 것과 사상적인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청언은 만명에서 청초로 이어지는 150여 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출현하여, 백 수십 종이 넘는 거대한 작품군을 이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창작은 진계유(陳繼儒)의 『암서유사(巖棲幽事)』, 도릉(屠隆)의 『사라관청언(娑羅館清言)』 등이 꼽히며, 편집본의 경우에는 오종선(吳從先)의 『소창청기(小窓淸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들 청언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는 17세기의 허균이었고, 18세기에서는 심재였다. 그러나 『한정록』과 『송천필담』의 편성 방식이

3) 周作人, 「中國新文學의 源流」; 김철수 역, 『中國新文學史話』(동화출판공사, 1983).

4) 合山究, 「明清時代의 아포리즘文學」, 『醉古堂劍掃』(選譯)(東京: 明德出版社, 1978), 153-193쪽.

5) 『四庫全書總目』 권132, 「增定 玉壺氷」提要. “山人墨客, 莫盛於明之末年, 刺取清言, 以夸高致, 亦一時風尚也.”

다른 만큼 강조점도 달랐다.

『송천필담』에서 인용한 45종의 중국 역대의 전적 목록과 인용 횟수를 정리해보면 심재의 청언에 대한 관심 정도를 쉽게 기능할 수 있다.

(經義考)[1], (古今事文類聚)[4], (古今說海)[1], **考槃餘事**[3], 廣莊[2], 大明一統志[2], 東坡志林[2], 列仙傳[1], 列朝詩集[1], 方洲雜錄[1], 瓶史[1], 貧士傳[2], **娑羅館清言**[8], 山家清事[1], 參同契[1], **小窓清記**[8], 宋史斷[1], (宋稗類鈔)[3], 詩文清話[1], 樂郊私語[1], 顏氏家訓[1], **巖樓幽事**[1], 野客叢書[4], 言行彙纂[2], 王照新志[2], **偶譚**[1], 雲煙過眼錄 [1], 自警編[1], 長公外記[1], 藏說小萃[1], 朱子大全[1], 朱子語類[3], 知非錄[2], 泉州志[1], **清暑筆談**[14], 青雲騷[1], **太平清話**[1], **筆囑**[10], **何氏語林**[1], 鶴林玉露[4], **明世說新語**[1], 淮南子[1]<sup>6)</sup>

『학림옥로(鶴林玉露)』 등 명대 이전의 문헌도 몇몇 보이지만, 명대의 문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굵게 표시한 문헌은 청언·청담류에 속하는데 모두 10종이다. 다른 문헌은 한두 조목 인용한 데 반하여 청언류 문헌은 훨씬 여러 번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반여사』, 『산가청사』, 『암서유사』, 『태평청화』, 『하씨어림』, 『명세설신어』 등은 널리 알려진 문헌으로, 17세기의 허균이나 19세기의 조희룡, 서유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었듯, 청언 인용의 면에서 『송천필담』과 『한정록』은 유사한 점이 많다. 『한정록』에서 주목한 『소창청기』와 『지비록』 등은 『송천필담』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되었다. 이밖에 『자경편』, 『장설소취』 등 20여 종을 허균과 심재가 공통으로 인용하였다.<sup>7)</sup> 청언에 대한 허균과 심재의 취향이 큰 방향에서는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간의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송천필담』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한 『청서필담』과 『필주』는 허균이 주목하지 않은 문헌이고, 또 『옥조신지』, 『운연과안록』, 『낙교사어』, 『우담』, 『아객충서』 등 역시 『한정록』에서는 인용된 바 없는 책들이다.

허균은 인용한 적이 없고 심재만 인용한 문헌들은 대개 진계유가 편집한 총서 『보안당비급(寶顏堂秘笈)』의 정집(正集)에 수록되어 있다. 『보안당비급』은 크게 여섯 개의 시리즈로 나누어지는데, 진계유 본인의 저술 17종으로 구성된 『보안당비급』 비집(秘集)을 포함하여 정(正)·광

6) [ ] 안의 숫자는 인용 횟수이다.

7) 양영욱, 앞의 논문(2007), 23쪽.

(廣)·보(普)·휘(彙)·속(續) 집으로 편성되었다. 이 6종의 총서에 수록된 문헌은 모두 230여 종이다. 『보안당비급』 시리즈는 만력 연간에 수수심씨(繡水沈氏)의 상백재(尙白齋)에서 간행한 것으로, 정집과 속집 그리고 비집(일명 『미공잡저』)은 1606년, 광집은 1615년, 보집과 휘집은 1620년에 연이어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정집에는 『옥조신지』부터 『고반여사』까지 모두 21종이 수록되었다.<sup>8)</sup> 원평도가 쓴 장자 비평문인 「광장(廣莊)」은 원평도의 문집과 여러 총서에 전해지고 있는데, 심재는 『보안당비급』에 있는 것을 본 것이 확실하다. 그가 “비급광장(秘笈廣莊)”이라고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또 심재가 “비급청언(秘笈淸言)”, “비급필주(秘笈筆疇)”라고 표기한 것 역시 이 시리즈 정집에 실린 『사라관청언』과 『필주』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송천필담』에서 인용하고 있는 책은 『옥조신지』, 『운연과안록』, 『필주』, 『낙교사어』, 『청서필담』, 『빈사전』, 『사라관청언』, 『광장』, 『병사』, 『우담』, 『야객총서』, 『고반여사』 등 12종이다.

심재는 『보안당비급』 정집에 수록된 문헌을 참고했음이 분명하다. 심재는 원평도의 『병사』와 「광장」을 인용하기는 하였지만 원평도의 문집을 보지는 못했던 듯하며, 원평도의 문학과 비평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조귀명, 박지원, 이옥, 이덕무 등이 원평도의 문장과 비평에 관심을 기울였던 데 비하여, 심재는 원평도의 산문 자체에는 그다지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sup>9)</sup> 심재는 만명사조 가운데 도룡, 진계유 등의 서정성이 있는 청언뿐 아니라 왕달, 육수성 등의 철학적 아포리즘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허균이 『한정록』에서 진계유의 글을 대거 수록한 이래, 18세기에 들어서도 이덕무, 박제가 등이 진계유의 저작을 열람하고 기록을 남겼다.<sup>10)</sup> 심재도 진계유를 주목하여 『암서유사』, 『태평청화』 같은 책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허균이 진계유의 청언을 중시한 것에 비하여 심재는 진계유의

8) 상해도서관 편, 『중국총서총독』 1(상해고적출판사, 2007), 45쪽. 21종은 다음과 같다. “玉照新志, 考槃餘事, 雲煙過眼錄, 雲煙過眼續錄, 學古編, 筆疇, 書品, 樂郊私語, 清暑筆談, 貧士傳, 焚椒錄, 歸有園塵談, 娑羅館淸言, 娑羅館逸稿, 續娑羅館淸言, 冥寥子游, 甲乙剩言, 廣莊, 瓶史, 偶談, 野客叢書, 考槃餘事”

9) 강명관, 『공안과와 조선후기 한문학』(소명출판, 2007), 261-262쪽.

10) 한영규, 「조희룡 산문의 만명 청언소품 수용과 그 특징 - 진계유 청언소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안대회 편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태학사, 2003).

것보다는 『청서필담』, 『필주』 등 새로운 문헌을 더 빈번히 인용하였다. 또한 허균이 『하씨어림』, 『명세설신어』를 대거 인용한 것에 반하여, 심재는 한 차례씩 인용했을 뿐이다. 즉 허균이 운미(韻美)를 띠는 청언에 주목했다면, 심재는 그와 아울러 성미(醒美)를 띠는 인생훈적 청언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허균과 심재는 명대 청언에 대한 취향이 세부적으로 매우 다른 면모를 보였던 것이다.

### III. 『송천필담』의 청언 수용 양상

심재는 여러모로 허균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인물이다. 그의 독서 범위가 광범하다고 하지만 허균에 비길 수 없다. 그러나 청언에 대한 이해의 심도 면에서는 심재가 허균에 뒤처지지 않아 보인다. 심재는 필기잡록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언류 문헌을 깊이 읽고 이해하였고, 또 자기 방식으로 비평안을 드러내었다.

#### 1. 『소창청기』

『한정록』에서 허균은 오종선이 편집한 『소창청기』를 유독 부각시켰다. 『소창청기』에서 모두 101칙을 뽑았는데, 이 책이 모두 650여 칙으로 되어 있음을 떠올릴 때, 상당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정록』 부록인 권19에 오종선의 「서헌(書憲)」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즉, 허균은 만명의 문인 오종선이라는 인물과 그의 『소창청기』를 특필했던 것이다.<sup>11)</sup> 허균의 이러한 선택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오종선이란 문인이 본래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에 대해 주목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소창청기』는 고인의 기록과 문장을 다소 잡다하게 모은 다음, 경우에 따라 자신의 평을 부기한 ‘평집(評輯)’ 형태의 청언 선집으로, 청어(淸語), 청운(淸韻), 청사(淸事), 청향(淸享)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창청기』는 편집된 아포리즘 모음으로서 문학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성향을

11) 한영규, 「『間適』의 선망과 『閑情錄』, 『문헌과해석』 제19호(문헌과해석사, 2002).; 한영규,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선망: 허균의 『한정록』,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휴머니스트, 2006).

떠어 명말에 널리 유포되었고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를 만큼 호응이 있었다.<sup>12)</sup>

『소창청기』의 인기에 비해 이 책의 편자는 그 행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종선은 1580년경에 태어나 1630년까지 생존한 것으로 추론되고, 『소창청기』는 1613-1615년 무렵 출간되어 일곱 차례 간행되었으며, 1670년에는 일본에서 번각본이 나오기도 하였다. 오종선은 호가 소창(小窗)이며, 안휘성 흡현 사람으로 당시의 석학 풍몽정(馮夢禎)에게 수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채 양명좌파의 사상적 자장 안에서 활동하면서 초광(焦宏), 진계유 등과 교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만명의 문인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책을 편집·출판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막역한 사이였던 하위연과 함께 총서인 「광쾌서(廣快書)」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오종선은 이탁오를 존송하여 이탁오의 『사강평요(史綱評要)』를 1613년 교감 출판하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독옹찬(李禿翁贊)」을 짓기도 하였다. 대만의 원로 서지학자는 최근 오종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가 반(半)서림(書林)이자 반(半)사림(士林)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당시에 진계유·장방·화숙·종인걸과 같은 출판업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고증하였다. 다만 진계유가 일류, 장방·종인걸이 이류에 속했다면 오종선·하위연·민경현은 삼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13)</sup>

심재 역시 『소창청기』를 면밀히 읽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전거로서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오종선 자신은 삼류 서림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가 편집한 청언 선집은 만명의 출판계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허균에 이어 심재 역시 이 『소창청기』의 내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심재는 또한 이 책이 조선에 전래된 저간의 사정과 허균의 특별한 애호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陶谷이 말했다. “평나라의 인물은 대저 진중하지 못하고 경술하고 천박하여 질박하고 후덕한 기상이 없다. [...]” 내가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중국 사람이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고 拂塵을 휘두르고 현묘한 이치를 이야기함에 마땅히 걸모습과 속마음이 맑고 밝으며 한 점의 티끌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지만 대부분 재화를 탐내고 여색에 빠져 음란한 모습의 그림을 늘 눈에 가까이 하며, 약을 복용하여

12) 舍山究, 앞의 논문, 167쪽.

13) 王重民, 「關於吳從先」, 『冷廬文藪』(상해고적출판사, 1992), 194쪽.

욕정을 마음껏 따른다. 문자를 저술함에 있어서도 『금병매』·『육보단』 등의 책은 음란함을 가르치는 술책이 아닌 바가 없다. 이미 皇朝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도히 넘쳐나는 세상의 풍조가 이와 같았다. 명말 延陵의 오종선 寧野가 『小窓清紀』를 評輯하였는데, 이 책이 처음으로 전래됨에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겨 감상하였으며, 허균이 『한정록』을 편집하면서 여기에서 많이 취하였다. 영야의 숙부 吳達가 서문을 짓고 첫머리에 실었다. [...] 이는 곧 부차가 음란함을 탐하여 멸망을 재촉한 것을 가지고 世德이라고 자랑한 것이다. 『소창청기』는 진실로 담백하고 전아한데 서문은 부처 이마에 똥칠을 하고 말았으니, 당시 세속에서 숭상한 바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sup>14)</sup>

심재는 『소창청기』를 두고 담백하고 전아하다고 호평하면서, 『금병매』, 『육보단』 같은 음란한 책과는 유를 달리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였다. 『소창청기』가 인용하고 있는 역대 문헌은 매우 방대하여 제자서에서부터 동시대 이탁오의 문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158종에 달하였다. 이는 역대 문헌에서 ‘청(淸)’이라는 기준에 따라 문장을 잘라낸 것이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 물론 문맥상 오규(吳達)가 지은 서문<sup>15)</sup>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이기는 하겠으나, 심재가 이 청언 모음집의 내용에 대해 매우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허균이 이 책에서 열광적으로 백여 조목을 뽑은 것에 비하여, 심재는 조금 평정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澤堂이 말하였다. [...] 이 세 측면의 말은 세상에 드문 훌륭한 이야기라 하겠다. 陶谷이 말하였다. “[...] 이른바 충현·호걸·문장의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가까운 바가 없으니 비웃을 따름이다.” 내 생각으로는 택당과 도곡의 말은 모두 말세에 대한 탄식이다.

고인이 말하였다. [...] 첨정 李顯應이 일찍이 말하였다. [...] 대개 또한 두 공의 말과 같은 뜻이면서 비꼬아 말하는 격론인 것이다.

『소창청기』에서 말하였다. “晉인의 청담과 송인의 도학은 서로 쓰임이 되지 않지만 때로는 다시 서로 구제하니 이른바 ‘떨어지면 둘 다 해가 되고, 합치면 둘 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행실은 바로 진과 송 사이에 처해야 마땅하다.” 진인의 풍도를 띠고 송인의 도학으로 버리를 삼는다면 인품과 才情이 모두 세상의 기준에 합치될 것이다.<sup>16)</sup>

14) 『교감역주 송천필담』 1, 67-69쪽.

15) 오규의 서문이란 『小窓清紀引』을 말하는데 이는 계축년인 만력 41년(1613)에 지은 것이다. 이 서문은 현재 국내에 전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소창청기』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소창청기』는 이 필사본이 유일하다. 표제에 ‘五清園所藏’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소장이었는지는 미상이다. 이밖에 『山窓清話』라는 필사본 1책이 국민대학교도서관에 남아있는데 이 속에 ‘小窓清記抄’라 하여 『소창청기』의 일부가 초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소창청기』의 유통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심재는 『소창청기』에서 모두 8조목을 뽑았는데, 위 문구는 「청어」 부분에 실려 있다. 이 조목 뒤에 편집자 오중선의 논평인 “옳고도 옳은 말이더是是”라는 어구가 붙어 있다.<sup>17)</sup> 『소창청기』 6백여 조목을 대표할 만한 성격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목의 주제는 요즘 같이 속된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충현·호걸·문장가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택당 이식, 도곡 이의현, 성명 미상의 고인(古人), 이현웅의 우환어린 발언들이 연이어 소개된다. 그리고 나서 심재는 『소창청기』의 “진인의 청담에 송인의 도학”이라는 말을 뽑아 결론을 삼았다. 그만큼 『소창청기』의 메시지에 깊이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심재가 『소창청기』의 한 조목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주목된다. 그는 택당과 도곡의 말은 모두 말세에 대한 탄식이며, 고인과 이현웅의 말은 비꼬는 자세로 말한 것이라고 간단히 평하였다. 그리고 나서 『소창청기』의 조목을 결론인양 제시하고, 자기 견해를 부연하였다. 심각하다면 매우 심각한 의제인데, 심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택당과 도곡과 고인과 친구에 맞서 분명한 자기 주장을 드러낸 것이다. 일종의 비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체를 통관해볼 때, 이 조목은 조금 굴곡은 있지만 또 하나의 청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배치할 수 있으려면 『소창청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안은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만명의 아포리즘에 대한 내면에서의 자기 소화가 심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달리 『소창청기』의 내용에 나름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천하의 書目을 보다가 연경 책방의 書名에 미치어 보니, 그 수가 수십 만에 그칠 뿐이 아니었다. 내 스스로 여러 책을 널리 본 자라 생각하고 이미 본 책에 점을 찍으려고 함에 아득히 亡羊之歎이 있게 되었으니, 비로소 세상의 책을 모두 읽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지은 책을

16) 『교감역주 송천필담』 1, 455-458쪽. 『교감역주 송천필담』에서는 이 문장 전체를 『소창청기』의 인용으로 보았으나, 원 출전의 대조 결과 마지막 문장의 “진인의 풍도를 띠고(帶以晉人之風) [...]” 이하는 심재의 말이다.

17) 吳從先 편, 『小窓清記』,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小說家類 253(齊魯書社, 2001), 303쪽. “晉人清談, 宋人學道, 不相爲用, 而時復相濟, 所謂離則兩傷, 合則兩美也. 我輩行已政當在晉宋之間. [是是].”

저녁에 새겨서 배포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에, 아직 보지 못한 책이 이미 본 책보다 매우 적은 것이다. 『소창청기』에서 말하였다. “나는 보지 못한 책을 읽게 되면 좋은 친구를 얻은 듯하고, 이미 읽은 책을 보게 되면 고인을 만난 듯하다.”

대저 사람들은 책을 봄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데 빠져들며, 옛 것을 가까이하는 데에는 게으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는 쉬운 일이고, 고인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다.”<sup>18)</sup>

『소창청기』에서 “吾讀未見書，如得良友；見已讀書，如逢故人.”라고 말한 것을 받아 심재는 “如逢良友易，如見故人難.”이라고 화답하였다. 일종의 아포리즘을 통한 수창이라고 할 수 있다. 요는 심재가 이 청언집의 내용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며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허균이 『소창청기』를 일백여 번 인용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심경을 대변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학적·문예적인 수용이라면, 심재의 경우 허균의 문예적 지향이 조금 약화된 대신, 청언을 통한 의론화(議論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소창청기』는 18세기 이후 다른 문헌에서 몇 차례 인용되기는 하였지만, 『한정록』과 『송천필담』에서와 같이 증시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산림경제』, 『증보 산림경제』, 『임원경제지』<sup>19)</sup>,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 몇 차례 인용되기는 하였다. 다만, 이는 『한정록』이 문학적 운치를 주로 하고 실용적 지식을 부수적으로 포함했던 방향을 전도시켜놓았던 것이다.<sup>20)</sup>

심재는 『소창청기』의 청언을 인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발언을 대신할 만큼 그 방향에 동의를 표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 수궁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점은 허균이 『소창청기』의 내용에 열렬히 찬동한 것과는 거리를 갖는다. 『소창청기』가 발하는 취(趣)의 방향에는 동조하되 심재는 보다 자기 관점에서 이 청언 선집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18) 『교감역주 송천필담』 1, 68쪽.

19) 『임원경제지』의 인용서목의 ‘소창청기’ 조목에서는 그 편자를 ‘明 吳經元’이라 표기하였다(서유구, 『인용서목』, 『임원경제지』 1(보경문화사, 1983), 30쪽). 서유구가 오종선이라는 인물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 한영규, 『조선 후기 청언소품의 특징』, 안대회 편, 『조선 후기 소품문의 실제』(태학사, 2003), 166쪽.

## 2. 『세설신어』체 청언

『세설신어』는 위진풍도를 대표하는 고전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무엇보다 간명하면서도 함축적인 문장 서술이 주목받았다. 청대의 비평가 유희재(劉熙載)는 역대 문장의 취향이 세 번 변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장자』와 『열자』의 출현, 불경의 중국 유입, 그리고 『세설신어』의 성서(成書)를 손꼽았다.<sup>21)</sup>

『세설신어』는 만명사조에도 큰 영향을 끼쳐<sup>22)</sup>, 『명세설신어』, 『하씨어림』 같은 세설체 청언류가 연이어 출현하였다. 청대의 기운(紀昀)은 『세설신어』가 만명 소품문의 연원이라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세설체 청언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바, 특히 필기잡록에 세설체의 일화가 많이 실렸다.<sup>23)</sup>

허균은 『한정록』을 엮으면서 『하씨어림』에서 95칙, 『세설신어』에서 55칙, 『명세설신어』에서 25칙을 뽑았다. 인용 빈도수로는 각각 2, 3, 8번째에 해당했다. 『한정록』은 어느 측면에서는 『세설신어』류 문헌의 절요본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18세기 조선에서 널리 유행한 문헌은 명대에 편집된 『세설신어보(世說新語補)』였다. 이는 『세설신어』에다 『하씨어림』의 일부를 더하여 왕세정(王世貞)이 산정하고 왕세무(王世懋)가 비석(批釋)을 단 것으로, 명대 내내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 현종 때 관찬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심재는 『송천필담』에, 주지번이 이 책을 가지고 와 유근(柳根)에게 준 이후로 조선의 문인들이 즐겨 보게 된 저간의 사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sup>24)</sup>

또 심재는 『하씨어림』과 『명세설신어』를 인용하면서 흥미로운 의론을 펼쳤다.

21) 劉熙載, 『藝概』 권1; 『劉熙載文集』(江蘇古籍出版社, 2001), 61쪽. “文章踐徑好尚, 自莊列而一變, 佛書入中國又一變, 世說新語成書又一變。此諸書, 人鮮不讀, 讀鮮不嗜, 往往與之俱化。有涉而不瀦, 役之而不爲所役, 是在卓爾之大雅矣。”

22) 夏咸淳, 『明六十家小品文精品』 「前言」(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5), 1-2쪽. “魏晉以來, 蔑視禮教, 崇尚通脫的風氣, 促進了小品文的滋長, 『世說新語』與 『水經註』, 便是兩部突出的小品文萃集。前者記晉人風度, 短簡片語, 神情畢具。[...] 這兩部奇書, 對後世小品文創作影響極大, 尤其受到明代文士的嗜愛。”

23) 김강환, 「『세설신어』의 국내 유전상황과 연구 개황」, 『동방학지』 제104호(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9), 368쪽.

24) 『교감역주 송천필담』 1, 65쪽.

李山海의 문하생 가운데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 많았다. 어떤 이가 아계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읽어 과거에 합격하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공이 말했다. “七書를 대충 읽은 자에게는 『통감절요』를 가르치고 [...] 과거시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尹斗壽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항상 『古文眞寶』를 송독하게 하였다니 네 사람이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 그의 손자 順之는 문형을 지냈다. 月汀은 문형이 된 뒤로부터 여덟 아들에게 매양 『史記』를 읽도록 하였지만, 여덟 사람이 모두 급제하지 못했다.

내가 『명세설신어』를 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汪道昆의 서가에 만 권이 넘는 책이 쌓여 있었다. 손님들이 오래도록 그것을 결눈질하자 그가 말했다. ‘너무 많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저 찾아볼 때를 대비한 것이다. 인생에 필요한 책은 단지 몇 가지면 된다. 비유컨대 한고조가 천하를 취하면서 측근에 두었던 자는 소하, 장량, 한신뿐이었던 것과 같다.’”<sup>25)</sup>

“과거 준비가 내 삶을 망쳐버렸다.”고 고백했던 심재의 입장에서 보아<sup>26)</sup>, 『고문진보』를 읽으면 급제하기 쉽고 『사기』를 읽으면 합격하지 못했다는 말은 귀가 번쩍 뜨이게 할 만한 것이었다. 심재는 이런 세속의 이야기를 하다가 돌연 『명세설신어』의 한 조목 청언으로 논란을 매듭지었다. 논리적으로 약간의 비약이 있긴 하지만, 인생에서 꼭 필요한 책은 몇 종이면 된다는 『명세설신어』의 한 조목을 요긴하게 활용하였다. 이 기사 역시 한 편의 청언과 같은 운치를 지녔다.

그런데 보다 주목할 것은 심재가 『송천필담』 곳곳에서 인용이 아니라 『세설신어』풍의 청담을 지어놓았다는 점이다. 즉 18세기 조선이 산출한 세설체의 청담을 찾아내어 기록하였다.

김승겸이 처음 금강산에 가게 되었을 때, 나귀를 타고 장안사 어귀로 접어들어 산봉우리가 빼어난 것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기이한 풍광에 소리를 지르고, 그 즉시 나귀에서 내리더니 돌을 집어 나귀의 발굽을 치는 것이었다. 종이 그 이유를 물으니, “지금 여기서는 절뚝거리는 나귀가 더욱 멋스럽지.”라고 말하였다. 이 일은 淸狂하여 속태가 없으니 자못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다.

“미불은 돌에 절하였고, 潘谷은 李廷珪가 만든 먹에 절하였다. 盧廷璧은 승려 詔可의 10가지茶具를 보면 의관을 갖추고 절하였다. 이 세 가지 일은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며, 고상한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친 것 같기도 하다. 한 번은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두 번 다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sup>27)</sup>

25) 『교감역주 송천필담』 1, 226-227쪽.

26) 『교감역주 송천필담』 2, 434쪽.

27) 『교감역주 송천필담』 2, 565쪽.

이 두 예문은 『송천필답』의 한 조목에 앞뒤로 들어 있는 것을 떼어놓은 것이다. 첫 번째 예문 앞에는 “내가 듣건대”라는 말이 붙어 있고, 뒤의 예문 맨 앞에는 “전에 『하씨어림』을 보았는데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즉 앞 예문은 조선식의 세설체 문장이고, 뒤의 예문은 명대의 것을 인용해놓은 것이다. 김송겸이나 미불이나 모두 미련해보이 기도 하고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조목을 두고 굳이 우열을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만큼 짙막한 일화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었다.

심재가 이 두 문단을 한 조목 안에 나란히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것만 가지고는 웬지 불안했던 것일까, 아니면 『하씨어림』을 읽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 심재는 이 두 문장을 기술하고 그 마지막에 “나는 말하노니 김송겸이 나귀 발굽을 내리친 것은, 그가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서인가보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들”이란 미불 등의 세 사람을 말한다. 즉 심재는 김송겸의 일화가 미불 등의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즉 명대의 세설체 문장을 의식하면서 당대의 사례를 적극 발굴해놓은 것이다.

어떤 조목은 중국 문헌의 인용 없이 18세기 조선의 사례로 문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내가 李聖源과 더불어 石湖의 息履亭에서 자다가 새벽녘 베개를 베고 말하다가 마침 농암과 삼연 두 공의 ‘다른 면모’에까지 미쳤다. “무릇 두 공과 더불어 산수를 유람하게 되면 농암은 반드시 ‘어느 곳은 불만하니 가보겠네.’라고 하고, 돌아와서는 “갔다 왔네.”라고 한다. 삼연은 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가고, 함께 행동하길 기다리지 않고 혼자 돌아온다네.”

하루는 聖源과 더불어 절에 갔다 돌아와 성원의 滙華軒에서 자기로 약속하였다. 다음날 아침 날씨가 추워지더니 눈이 내리려 했다. 성원은 눈을 핑계로 약속을 물리자 했더니, 삼연은 흥취가 없다고 크게 편잔을 주고는 홀로 걸어나갔다. 성원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계곡에 들어서자 눈이 펑펑 쏟아져 땅에 한 자나 쌓였다. 성원이 소매로 깎과 모자 위의 눈을 털면서 가다가 삼연을 돌아보았다. 삼연은 온 몸이 눈으로 덮였고 모자가 눈에 눌러 꺾어지려 하는데도 끝내 한 점도 털어내지 않았다. 그 환한 모습이 마치 유리빛 如來佛이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어떤 이가 “농암이라면 눈을 털어냈겠습니까?”라 묻기에 내가 말했다. “눈을 털어냈는지 안 털어냈는지는 난 모른다. 만일 털어내지 않았다면, 아마 털어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닐 것이다.”<sup>28)</sup>

이 조목의 화자 ‘나’는 심재가 아니다. 맨 앞에 ‘서암만록(恕庵漫錄)’이라는 인용 표시가 있으므로 ‘나’는 신정하이다. 이 조목은 신정하의 『서암집』에도 실려 있다.<sup>29)</sup> 심재는 신정하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놓았다. 이성원(李聖源)은 농암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으로, 농암이 중국 역대의 문장 2백여 편을 뽑아 『문취(文趣)』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에게 준 바 있다. 신정하는 이 글에서 이성원에 대하여 “오직 성원처럼 세속에 연루되지 않고 한가로운 자만이 이 책을 음미할 줄 알고 이 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0)</sup>

위 예문의 일은 을유년(1705) 12월 20일에 있었다고 신정하는 기록하였는데, 심재는 이 부분을 제외하였다. 문장의 운치를 살리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정하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탓인지, 심재가 직접 구성한 여타의 세설체 문장들에 비해 함축미가 조금 약화되어 있고 구성의 짜임새가 느슨해진 듯한 면모가 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는 농암과 삼연의 기질이 확연하게 대조되고 부각되어 생동감을 얻었다. 소위 시시덕형과 새침덕형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단락 가운데 특히 삼연이 눈을 뒤집어쓴 모습이 마치 여래불 같았다는 두 번째 단락이 압권이다. 신정하는 『문취』에 붙인 서문에서 “때로는 한마디 말, 한 글자 사이에서도 눈을 찻는 것보다 더 상쾌한 맛을 느끼었고, 때로는 한가한 말과 한만한 흥을 기탁한 속에서 사탕수수 찻는 맛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었다.”고 하였다.<sup>31)</sup> 취에 대해 이렇게 예민한 심미안을 지녔던 신정하이기에, 농암과 삼연의 인간미를 이처럼 간명하게 포착하였고, 심재가 이를 인용하여 다시 자신의 필기에 배치한 것이다. 18세기식 세설체 청언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관아재 조영석은 풍속화와 인물화를 잘 그렸는데, 늘 검재 정선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리강산을 일필휘지로 그려내면, 필력의 웅혼함과 기세의 流動함은 내가 그대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털끝 하나하나의 핏진함과 정교함에 이르러서는 그대가 반드시 나에게 한 수 양보해야 할 것이다.”<sup>32)</sup>

28) 『교감역주 송천필담』 1, 482-483쪽.

29) 申靖夏, 「漫錄」, 『恕菴集』 권16, 한국문집총간 197, 483쪽.

30) 申靖夏, 「文趣序」, 『恕菴集』 권10, 위의 책, 361쪽.

31) 申靖夏, 「文趣序」, 『恕菴集』 권10, 위의 책, 361쪽.

32) 『교감역주 송천필담』 2, 402쪽.

이 조목은 온전히 하나의 이야기이고, 인용처도 밝혀져 있지 않아 심재가 직접 문장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 심재는 서화에도 관심이 많아, 이런 유형이나 또는 보다 본격적인 비평문도 산재한다. 심재가 정선, 윤덕희, 변상벽, 심사정, 이인상의 서화에 대해 언급했던 논평은 훗날 오세창의 『근역서화징』<sup>33)</sup>에 두루 수록되었고, 이는 심재의 예리한 서화 비평의 산물이었다.

위와 같이 두 인물을 대비시키며 두 인물의 특성을 동시에 품조(品藻)하는 방식은 『세설신어』 글쓰기의 대표적 특징이다. 꼭 두 인물이 등장하는 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송천필담』에는 이런 풍의 문장들이 산재해 있다. 「신정하의 고결한 풍모」<sup>34)</sup>, 「이의현의 남다른 취미」<sup>35)</sup> 류는 대개가 한 인물의 언행의 한 부분을 간결하게 드러내어, 그것으로 그 배후의 여러 측면을 짐작케 하는 함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장들은 18세기에 심재가 창조한 세설체 청담이었다. 이덕무 등이 자기 나름의 청언을 창작했지만 심재와 같이 세설체의 문장을 여럿 창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세설체 청언·청담의 창조는 『송천필담』이 명대 청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달성한 최대의 문예적 성취라고 평가된다.

이와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심재 자신의 의론을 통해 하나의 청언 문장을 창작한 경우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대저 하나의 기예라도 모두 촉발됨이 있고 나서야 변화하여 이루어짐이 있다. 글씨란 붓을 적서 먹을 묻히는 데서 시작되지만, 張旭의 초서는 渾脫舞로 인해 조성의 경지에 이르렀다. 거문고는 반드시 현을 고르는 데서 시작되지만, 成連의 교묘한 솜씨는 산수를 유람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묘한 깨달음과 신령스런 영감의 경지는 진실로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마음에서 느낄 따름이다. 비로소 사마천의 문장이 또한 壯遊에 있었고 책에 있지 않았음을 알겠노라.<sup>36)</sup>

이 문장의 서두에는 “내 생각은 이러하다.”는 말이 붙어 있다. 예문에 앞서서는 『보안당비급』에 있는, 유람을 해야 흥금이 트여 문장이 좋아진다는 내용을 인용해놓았다. 심재는 그 문제를 이어받아 자신의 생각을

33) 오세창 저, 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근역서화징』(시공사, 1998), 650-722쪽.

34) 『교감역주 송천필담』 1, 481-482쪽.

35) 『교감역주 송천필담』 1, 509-510쪽.

36) 『교감역주 송천필담』 1, 157쪽.

덧붙이면서 주제를 강화시켰다. 그는 사마천의 문장이 위대해진 이유는 그 원인이 독서에 있지 않고 널리 유람한 데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예문은 함축미는 조금 덜하지만 만명의 청언에 비해 손색이 없다.

요컨대, 『송천필담』에는 『세설신어』풍의 문장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이 점은 심재가 의도한 글쓰기의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심재는 18세기 문인 가운데 『세설신어』풍의 문장 미학을 가장 심도 있게 이해한 인물의 하나였다. 이봉환, 성대중, 이덕무, 유만주 등의 청언소품 작가가 있지만, 세설체 문장에 대한 식견과 심미안만큼은 심재에 미치지 못하였다. 『송천필담』은 그 성격상 야담, 패설, 시화 등등의 여러 면모를 지녔지만 무엇보다 인물에 대한 일화가 세설체 문장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인물 품평형 필기라는 특성을 지녔다.

### 3. 『필주』와 『청서필담』

『송천필담』에는 앞서 거론한 세설체 청언 외에도 『필주(筆疇)』, 『청서필담(淸暑筆談)』, 『산가청사』, 『장설소취』, 『우담』과 같은 명대의 문헌이 활발히 인용되었다. 18세기 필기에 보이는 만명사조의 수용과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헌을 어떤 각도에서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먼저 『청서필담』과 『필주』 두 문헌을 심재가 중시한 이유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18세기의 심재만이 이 두 종의 청언류에 유독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세기의 허균뿐 아니라 심재 이후로 이들 문헌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필주』는 명대 초기의 문인 왕달(王達)의 잡록으로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에 41조목, 하권에 55조목이 실렸는데, 심재는 이 중 10조목을 인용하였다.

왕달은 자가 달선(達善), 호는 내헌거사(耐軒居士)로 무석(無錫) 출신이다. 홍무 연간(1368-1398)에 훈도(訓導)·국자조교(國子助教)를 거쳐 영락 연간(1403-1424)에는 한림원 편수, 시독학사를 역임했다.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성품이 간담(簡淡)하였다. 저술로 『내헌집(耐軒集)』, 『천유고(天游稿)』 등이 있다.

『필주』는 그가 홍무년간 대동부학(大同府學)으로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명대 초반의 저술이다. 그는 서문에서 먼 변방 이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고요히 지내며 천리와 인정을 살피고 자신을 성찰하며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sup>37)</sup> 그 내용은 도덕수양과 처세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며, 유복(柔伏) 퇴손(退遜)의 태도를 주장하면서 경전 문구를 인용하여 인정세대를 바로잡으려 한 내용이 많다. 왕달의 후배 축장(祝章)은 판각본의 발문에서, “명교(名教)에 도움이 될 내용이 많아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절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이 책에 억울(抑鬱) 분세(憤世)의 이야기가 많다고 평하였다.<sup>38)</sup> 만력 연간에 영수당(榮壽堂)에서 각본으로 간행되었고, 다시 진계유의 손을 거쳐 『보안당비급』 정집에 수록되었다. 명초의 저술이지만 명말에 간행되어 널리 알려진 문헌이다. 이 책은 『송천필담』 이외에는 『한정록』,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도 인용된 바 없다.

『청서필담』의 저자 육수성(陸樹聲, 1509-1605년)은 왕달에 비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자가 여길(與吉), 호는 평천(平泉)으로 화정(華亭) 출신이다. 동향의 후배 진계유, 동기창과 교류가 있었다. 육수성은 1541년 회시에 장원한 이래 서길사, 편수를 거쳐 남경 국자제주(國子祭酒)를 역임했다. 만력 연간에는 예부상서가 되었는데, 이때 조선은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로 윤근수(尹根壽)를 사신으로 보내는 등 명 조정과 접촉이 잦았고, 그 일을 예부의 책임자 육수성이 맡고 있었으므로 조선 조정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1573년(선조 6), 윤근수가 육수성을 만나고 그 인상을 적어놓은 한 조목이 『월정만필』에 전하기도 한다.

육수성의 문집으로 『육문정공집(陸文定公集)』이 전하며, 필기잡록으로 『청서필담』, 『모여잡지(耄餘雜識)』, 『장수일초(長水日鈔)』, 『다료기(茶寮記)』 등이 있다. 『명사』에 본전이 실려 있다. 이덕무가 지은 『입연기』 1778년 5월 19일 조에 연경의 책방을 박제가와 둘러보고, 우리나라에 없던 희귀본을 나열해놓았는데 거기에 『육수성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육수성의 문장은 이학(理學)에 근본을 두었는데, 특히 『주역』에 깊은

37) 王達, 「序」, 『筆疇』,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83. “余以笈蹇之資, 遠居塞外, 親戚朋友, 復無一人, 靜坐荒齋, 心口共語, 天理人情, 殊加有省. 假彼墨卿, 以抒衷曲, 命曰『筆疇』, 用以自戒.”

38) 「筆疇」, 『四庫全書總目提要』卷124. “筆疇二卷, 明王達撰, 達字達善, 號耐軒, 居士無錫人, 洪武中, 以明經薦爲縣學訓導, 改大同府學, 後遷國子助教. 永樂初, 擢編修官, 至侍讀學士. 是書, 多抑鬱憤世之談.”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시문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세교(世教)에 기준을 두었다. 그는 역대 전고에 밝아 고인의 성패 득실을 논할 때에는 대상자의 관작, 사는 곳, 나이 등이 막힘없이 흘러나왔고 실제 사실과 어긋나지 않아 듣는 자들이 감탄을 했다고 한다.

『청서필담』은 육수성이 관직에서 물러난 뒤 72세 때(1580년)에 지은 것이다. 여름을 보내면서 떠오르는 어구들을 모으고 ‘청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안당비급』 정집에 수록되었으며 육수성의 『진문정공잡저』 속에도 편입되어 간행되었다. 분량은 1권 85조목으로 매우 단순한 규모이다. 심재는 이 중에서 모두 14조목을 인용하였다. 『송천필담』에서 인용한 중국 문헌 가운데 인용 빈도상 첫 번째에 해당한다. 심재 이외에는 서유구가 『임원경제지』 「이운지(怡雲志)」에 몇 조목을 인용한 것이 확인될 뿐이다.

그렇다면 심재는 어떤 의도로 『필주』와 『청서필담』을 특별히 중시했던 것일까?

『淸暑筆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富란 원망의 창고이고, 貴란 위태로움의 기틀이다. 이는 그 올바른 도로서 부귀에 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한 것이다. 만약 곧장 영리에 처하여 번성함과 만족함을 누린 채 그칠 줄을 알지 못하거나, 기득감을 유지하며 겸손함을 지킨다면 어찌 원망의 창고와 위태로움의 기틀이 있다고 하겠는가?” 또 이런 말이 있다.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 처하여 위태로움과 망함으로 경계를 삼고, 욕망의 타오름에 당하여 절제와 인내로 경계한다.” 『筆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귀란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다. 옛날의 군자가 부득이하여 그것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 때문에 전전공공하면서 지키고 조심조심 보존했던 것은 부귀가 떠나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화복이 따라옴을 걱정해서였다. 지금 사람들은 갑자기 부귀를 얻게 되면 즉시 그 생각을 바꾸어 심력을 미혹되게 하여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는 자못 고명한 家鬼에도 귀신이 그 집을 내려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니, 어찌 능히 그 부귀를 보존할 수가 있겠는가? 이리므로 陳嬰의 어머니야말로 어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39)</sup>

공교롭게도 두 문헌이 한 조목에서 같이 인용되었다. 『청서필담』에서 65번째와 78번째 항목을 인용한 것이고, 『필주』에서는 권하의 42번째 항목 전체를 취해온 것이다.<sup>40)</sup> 두 문헌의 조목은 다 부귀를 경계하라는

39) 『교감역주 송천필담』 2, 351-352쪽.

40) 陸樹聲, 『淸暑筆談』; 王雲五 編, 叢書集成(初編) 2915(商務印書館, 1935), 10쪽.; 王達, 『筆疇』,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雜家類 83(齊魯書社, 2001), 600쪽.

인생훈적(人生訓的)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그 문장의 풍치는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작자인 왕달과 육수성 개인의 내면적인 서정성은 거의 담겨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처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며 그 문장은 문학적 풍치를 지니는 아포리즘에 해당하였다. 앞서 살핀 바의 『소창청기』나 세설체의 청언과는 그 풍치가 매우 다른 면모를 보인다.

심재는 『청서필담』에서 14항목을 인용하여 모두 7조목의 기사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운수의 정해짐, 자연계와 인체의 기, 화복과 처신, 사치와 검약, 서화와 선(禪), 천년을 영예롭게 사는 길, 세상을 살아가는 방도 등과 같은 주제였다. 『청서필담』에는 심재가 인용한 것 같은 삶의 거대담론 외에도 문방사우의 제작법 등 실용적이며 쇠말적인 조목도 적지 않은데, 심재는 이런 부분에는 눈길을 두지 않았다. 즉 심재는 육수성의 침중한 처세훈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청서필담』에 이런 말이 있다. “문장과 功業에 뜻을 둔 선비가 세상에서 바라던 것을 충족하면 종종 약을 구해 먹으면서까지 불로장생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도로는, 이미 이룬 운이 많으면 조물주가 아까워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직 검약하면서 태연하게 처신하며 조금만 취하고 적게 누리면서 그 여생을 이어나가는 것이 옳다. 옛날에 백거이가 忠州의 別駕가 되었을 때 명이 내리자 그 이튿날 丹甕을 부수었다. 대체로 世間法과 出世間法은 이처럼 양립하지 못하는 것이다.”<sup>41)</sup>

이 조목은 『청서필담』의 76번째 조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삶에 있어서 입세간과 출세간의 자세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매우 진지한 내용이다. 관직에 부임하러는 명을 받자 단약 제조용 절구를 깨부수었다는 백거이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세의 삶에 대한 큰 스케일의 각성이 환기되기도 한다. 허균 역시 『청서필담』이라는 인용서를 밝히지 않은 채 『한정록』 권9의 「광희(曠懷)」 편에서 “육평천(陸平泉)이 말하였다.”라는 표시를 붙여 이 조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sup>42)</sup> 이러한 청언이 환기하는 미감은 진계유의 『암서유사』에서 보여주는 작자 내면의 시적 정취의 표현과는 다른 방향이다. 즉 서정적이지 않고, 성미(醒美)를 동반하는 처세훈의 성격을 지녔다.

41) 『교감역주 송천필담』 2, 493-494쪽.

42) 허균, 『한정록』 권9, 「曠懷」; 『국역 성소부부고』 4(민족문화추진회, 1989), 183쪽.

퇴계의 편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後進이 先進의 문하에 들어가면, 주인이 그를 신임한다고 해서 그 문하에 있는 빈객들이 모두 그를 신임하겠는가? 그러므로 한 번 발을 딛고 한 번 입을 열 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비난을 당하게 된다. 비난당하는 것은 진실로 두려워할 일이고, 칭찬받는 것은 진실로 근심할 일이다. 옛 사람이 후진들을 경계하여 “오늘 임금 앞에서 칭찬을 한번 받고, 내일 재상이 있는 곳에서 칭찬을 한번 받았는데, 이 때문에 저절로 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다.” 이는 진실로 지당한 말이다. 『淸暑筆談』에 이런 말이 있다. “사대부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명성이 대단한 사람은 책망도 또한 엄중하다. 虛名이 한번 위세를 떨치면 실제로 쓰임을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眞西山의 경우, 한 시대에 대단한 명망을 업고서 조정에 들어가서는 이전의 명망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선배들이 말하기를, ‘명성은 그것대로 한 가지 일이고, 하는 일도 그것대로 한 가지 일이니, 강남은 토질이 척박하여 사대부가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말하였다. “사대부는 나아가고 물러감에 우연히 득실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모두가 정해진 운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득실은 살아 생전에 국한될 뿐이고, 옳고 그름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드러난다. 한 사람의 명성에 따르는 득실은 한 시대를 잘 누렸는가의 여부가 관건이고, 공론으로 옳고 그름이 얘기되는 것은 천년 동안 권면 혹은 경계할 대상이었는데와 관계된다. 그러므로 득실은 한 시대의 것이요, 영욕은 천년의 것이다.”<sup>43)</sup>

심재는 퇴계가 정유일(鄭惟一)에게 1558년에 보낸 편지를 먼저 소개하고<sup>44)</sup>, 이어 『청서필답』의 50번째와 53번째 두 항목을 들어 논지를 보강하였다. 요는 사인(士人)에게 있어 득실은 한 시대의 것이고 영욕은 천년의 것이니 현실적 명성에 초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대부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처세훈 바로 그것이다.

얼핏 보면, 퇴계의 편지와 명대의 청언이 나란히 소개된 것이 부자연스러워보이기도 한다. 심재는 노론이면서도 당파적 견해에 비교적 유연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퇴계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의아스러울 바 없지만, 그 말에 바로 이어서 아주 낮은 『청서필답』의 한 조목이 병치됨으로써, 매우 이질적인 조합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처세훈으로서 이 둘의 메시지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퇴계의 칭찬도 근심해야 한다는 말과 『청서필답』의 명성이 크면 책망도 엄중하다는 말은 서로 상통한다. 이러한 처세훈에는 앞의 세설체 청언과는 달리 심재의 의론이 별달리 개입되어 있지 않다.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의 당위적 성격을 지녔기에

43) 『교감역주 송천필답』 2, 423-424쪽.

44) 이황, 「答鄭子中」, 『退溪集』 권24, 한국문집총간 30, 82쪽.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혹은 퇴계의 문구와 『청서필담』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는 것이 의미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심재가 이렇게 처세훈에 큰 의의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심재가 주목한 처세훈은 현실의 득실에 초연하라는 메시지가 주종을 이뤘다. 즉 출세간적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심재는 처세훈체의 청언에 포함된 출세간적 탈속성에 깊이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허균이 명대의 청언 가운데 진계유의 『암서유사』류의 산인적(山人的) 취향에 크게 동조한데 비하여, 심재는 왕달·육수성의 청언에 보다 공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진계유는 관료 세계를 타자화한 문인 취향의 탈속성을 강조한 반면, 왕달·육수성은 관료로서 사인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지평에서 출세간의 취(趣)를 추구하였다고 하겠다.

산수유람과 서화감상에서도 이러한 출세간적 성향이 드러나 있다. 다만, 심재의 출세간적 지향은 문인적이기보다는 사인적인 성향을 지녔다. 그의 사인 지향은 관료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은 처지에서도, 여전히 관료 세계를 동경하는 자세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는 출세간적 취를 추구하면서도 완세(玩世)의 지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유종원은 永州와 柳州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천지간에 버림받은 몸임을 깨달았으며, 蘇軾은 절강지방을 모두 살펴보고 나서 스스로 평생의 기이한 만남이라고 자랑하였다.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산수 간에서 뜻을 얻은 이들이다. 무릇 선비가 때를 만나지 못함은 운명이다. 오직 자신이 처하는 곳에서 산천의 뛰어난 경치를 모두 다 살펴보고, 경치에 접하여 회포를 풀고 神·情을 펼치며 물 위에서 노닐면 황홀하기가 신선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일컬어 ‘군지는 어느 곳에 처하든 스스로 얻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보다.<sup>45)</sup>

이 문장의 앞에는 명대의 잡록 『지비록(知非錄)』의 한 구절로서, 좋은 경치는 고인 운사라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심재는 이 『지비록』를 비평하면서, 자기 주변의 승경에서 회포를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장의 끝에 “이를 일컬어 ‘군지는 어느 곳에 처하든 스스로

45) 『교감역주 송천필담』 1, 151쪽.

얼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보다.”라는 논평에서 심재가 추구한 심미 지향의 경계를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은 『중용』의 한 구절이다. 즉 심재는 산수에서 정회를 풀고 신(神)·정(情)을 펼치는 취를 추구할 것을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에는 유가 경전의 한 구절을 거론하며 ‘군자의 처신을 결론으로 삼았다. 요컨대 산수 유람을 통해 심미적 취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결국 유가적 자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로 스스로 국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로 발신하지 못한 심재의 일생은 교유와 독서, 유람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스스로 “내 평생을 되돌아보니 이 세상의 명사를 두루 사귀었으며, 여러 책을 많이 보았으며, 명산을 두루 유람하면서 훌쩍 진세를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였다.<sup>46)</sup> 여러 책에는 서화 관련 문헌이나 그림의 감상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광범한 지식의 섭취와 서화 감상 그리고 유람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심재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법하다. 실제 『송천필담』에는 청언의 선록, 서화 감상, 산수 유람에서 발견하는 출세간적 취향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취향은 사인적 탈속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심재가 농암 김창협과 도암 이재로 이어지는 근기 노론의 사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심미 취향 역시 이 사의식의 자장 속에서 추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재는 사인으로서의 경세의식을 늘상 유념하고 있었던 바, 그 자신 『송천필담』을 지으면서 “후세의 누군가가 선택해주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자세의 표시였다.

한편, 『송천필담』의 글쓰기 방식이 19세기의 차기체 필기<sup>47)</sup>나 백과전서식 찬술의 전사(前史)를 보여준다는 논의가 있기도 하다.<sup>48)</sup> 『송천필담』이 지니는 지식의 수용과 의론적 논평을 19세기의 지식추구형 필기와 굳이 연관지으려 할 때 이런 견해가 도출될 수도 있겠다. 다만, 『지수염필』과 같은 19세기 필기와 『송천필담』을 직접적으로 대비하거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내용의 성향이 다른 필기를 그 차기체라는 형식에

46) 「松泉筆譚自敘」, 『교감역주 송천필담』 3, 19쪽. “反顧平生, 不以貧賤憂戚而變其心, 歷抵當世之聞人, 卓觀群書, 遍遊名山, 飄然有出塵之想, 固其窮而晏如也.”

47) 진재교,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 - 지수염필을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유통」,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6호(한국한문학회, 2005); 진재교,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 지식의 생성과 유통의 관점에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9호(한국한문학회, 2005).

48) 양영욱, 앞의 논문(2007), 41, 74쪽.

만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그다지 유의미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송천필담』에 인용된 지식은 사인적 탈속성이라는 취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것인 반면, 차기체 필기는 지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차기체 필기는 고증학 등 청대의 학술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9세기적 성향을 지니는 반면, 『송천필담』은 주로 명대의 문헌을 취향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 청대의 학술과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이 글은 『송천필담』이 명대의 청언을 본격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한 최초의 필기잡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수용상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려는 의도 속에서 서술되었다.

앞에서 살핀 바 있듯이 심재의 청언 인용은 17세기 허균의 『한정록』과 유사한 면모를 지녔다. 특히 『소창청기』 등 만명 청언의 취향에 공명하고 이를 대거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심재는 청언류 문헌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의론적 지향이 있었고, 또 누구도 주목한 바 없었던 『필주』, 『청서필담』을 특별히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허균의 취향과는 일정하게 다른 지점을 향하였다. 또한 그가 세설체 청언을 인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풍격의 청언·청담을 채록하거나 스스로 창작한 것은 『송천필담』이 이룩한 매우 획기적인 면모였다.

심재가 세설체 청언과 아울러 처세훈체의 청언을 주목한 점 역시 『송천필담』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송천필담』에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그 풍도의 고상함을 품평하는 세설체 청언과 사인으로서 삶의 원칙을 추구하는 처세훈체의 아포리즘이 공존하게 되었다. 요컨대 심재는 진인적(晉人的) 풍도와 송인적(宋人的) 사의식의 두 방향에서 명대의 청언을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두 취향의 공존은 그의 심미 지향을 여실히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탈세간적 취향에 공명하는 한편으로 여전히 사인으로서의 세교의 측면을 긍정하였다. 그는 명대의 세설체 청언과 아울러 『청서필담』과 주희, 송시열, 이황 등의 처세훈까지도 주요하게 인용하였다. 즉 그의 취향은 탈속적 취를 추구하면서도 사인의 정체성을 벗어나지는

않으려 했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만명 청언을 수용할 경우, 사인적 ‘재도’보다는 문인적 ‘언지’의 측면으로 기우는 경향이 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17세기의 허균과 18세기의 유언호(兪彦鎬, 1730-1796)<sup>49)</sup>, 그리고 19세기의 조희룡이 역시 그러한 경향성을 지녔다. 이들은 모두 관료 세계를 타자화한 산인(山人) 진계유의 『암서유사』류의 청언을 중시하였다. 이들이 개아(個我)의 심령의 자유로운 표출을 중시하였던 것에 비해, 『송천필담』은 세설체와 처세훈체의 청언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다 온건하면서 절충적 입장을 지녔다.

심재의 사인적 탈속성의 ‘취’ 추구는 그의 산수 유람이나 서화 감상의 태도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과거로 발신하지 못한 처지에서 일생을 명사와의 교류와 유람, 그리고 서화 감상 등을 통해 자신의 탈속적 취향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취향은 벽(癖)이나 완세로 향하지 않으면서, 사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틀에서의 고사풍(高士風)의 심미성을 추구하려 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과거가 내 삶을 망쳤다.”고 토로한 적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관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사인으로서의 책무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재의 처지로 인해 『송천필담』에는 “진인의 풍도”와 “송인의 이학(理學)”으로 상징되는 두 세계에 대한 견문과 지식, 품평 등이 풍성하게 담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60대의 노경에 이 필기를 편술하면서 그 서문에 “참으로 궁하였지만 편안하였다(固其窮而晏如也)”고 술회하였다. 이때의 궁합이란 경제적 곤궁이기보다는 출사하지 못한 처지를 말할 것이다. 이러한 궁합 탓으로 농암 계열의 근기 노론 사인이 평생을 두고 관망한 당대 조야의 다채로운 면모가 『송천필담』에 기록되게 되었다. 즉 『송천필담』은 18세기 사인(士人) 관망자의 평생에 걸친 견문과 의견 그리고 취향의 집성태였다고 할 수 있다.

49) 兪彦鎬, 「林居四訣序」, 『燕石』, 한국문집총간 247, 11쪽. “予自數年來, 請養歸田, 端居無事, 時閱古人書, 凡有清談韻事之當乎心者, 輒加收錄, 仍以類次, 目之曰林居四訣. 其一達, 其二止, 其三逸, 其四適. - 是書也採老莊之玄虛, 集古今之放曠, 使人一讀之, 三千世界, 便作空華起滅, 再讀之, 十二竅皆生清風, 灑灑淅淅, 三讀之, 飄然有超鴻濛混希夷之意, 足以爲喚迷成覺之一妙諦也.”



## 참 고 문 헌

- 屠隆, 『娑羅館清言』. 程不識 編, 『明清清言小品』, 湖北辭書出版社, 1996.
- 陸樹聲, 『清暑筆談』. 王雲五 編, 叢書集成(初編) 2915, 商務印書館, 1935.
- 상해도서관 편, 『中國叢書綜錄』 1. 상해고적출판사, 2007.
- 吳從先 편, 『小窓清記』.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小說家類 253, 齊魯書社, 2001.
- 王達, 『筆疇』, 四庫全書存目叢書 子部 雜家類 83, 齊魯書社, 2001.
- 劉熙載, 『藝概』 권1, 『劉熙載文集』, 江蘇古籍出版社, 2001.
- 『四庫全書總目提要』.
- 서유구, 『임원경제지』. 서울: 보경문화사, 1983.
- 신정하, 『恕菴集』. 한국문집총간 197, 한국고전번역원.
- 신익철·조윤희·김종서·한영규 역, 『교감역주 송천필담』 1-3. 서울: 보고서, 2009.
- 오세창 저, 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근역서화징』. 서울: 시공사, 1998.
- 유언호, 『燕石』. 한국문집총간 247, 한국고전번역원.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한국고전번역원.
- 이하곤, 『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한국고전번역원.
- 이황,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30, 한국고전번역원.
- 허균, 『한정록』; 『국역 성소부부고』 4, 민족문화추진회, 1989.
- 강명관, 『공안과와 조선후기 한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7.
- 김명신, 『『송천필담』의 승전 연구』. 『어문논집』 28, 중앙어문학회, 2000.
- 김장환, 「세설신어의 국내 유전상황과 연구 개황」. 『동방학지』 1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9.
- 신익철, 「『송천필담』 해제」. 『교감역주 송천필담』 1, 서울: 보고서, 2009.
- 양영욱, 『『송천필담』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_\_\_\_\_, 「『송천필담』의 기록 양상에 대한 일 고찰」. 『한문학논집』 26, 근역한문학회, 2008.
- 오오키 야스시 저,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 이동현, 「송천필담의 글쓰기 방식과 문예의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원걸, 「『송천필담』 연구」. 『안동한문학논집』 4, 안동한문학회, 1994.
- \_\_\_\_\_, 『조선후기 야담의 풍경』. 서울: 파미르, 2006.
- 저자미상, 「『송천필담』 해제」. 『송천필담』, 민창문화사, 1994.
- 周作人, 「中國新文學의 源流」; 김철수 역, 『中國新文學史話』, 동화출판공사, 1983.
- 진재교,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 - 지수염필을 통해 본 지식의 생성과

- 유통」.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2005.
- \_\_\_\_\_, 「이조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 지식의 생성과 유통의 관점에서」. 『한국한문학연구』 39, 한국한문학회, 2005.
- 한영규, 「'閒適'의 선망과 『閑情錄』」. 『문헌과해석』 19, 문헌과해석사, 2002.
- \_\_\_\_\_,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선망: 허균의 『한정록』」.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 서울: 휴머니스트, 2006.
- \_\_\_\_\_, 「조선후기 청언소품의 특징」. 안대회 편,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파주: 태학사, 2003.
- \_\_\_\_\_, 「조희룡 산문의 만명 청언소품 수용과 그 특징 - 진계유 청언소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안대회 편,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체』, 파주: 태학사, 2003.
- 合山究, 「明清時代のアフォリズム文學」. 『醉古堂劍掃』(選譯), 東京: 明德出版社, 1978.
- 王重民, 「關於吳從先」. 『冷廬文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夏咸淳, 『明六十家小品文精品』.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5.

##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심재의 『송천필담』이 명대의 청언을 본격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한 최초의 필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수용상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려는 의도 속에서 서술되었다.

『송천필담』의 청언 수용은 17세기 허균의 『한정록』과 유사한 면모를 지녔다. 특히 『소창청기』 등 만명 청언의 취향에 공명하고 이를 대거 인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심재는 청언류 문헌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의론적 지향을 지녔다. 또 이전에 누구도 주목한 바 없었던 『필주』, 『청서필담』을 특별히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허균의 취향과는 일정하게 다른 지점을 향하였다. 또한 그가 『세설신어』체 청언을 인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러한 풍격의 청언·청담을 채록하거나 스스로 창작한 것은 『송천필담』이 이룩한 매우 획기적인 면모였다. 따라서 『송천필담』은 그 성격상 야담, 패설, 시화 등등의 여러 면모를 지녔지만 무엇보다 인물 품평형 필기라는 특성을 지녔다.

심재가 세설체 청언과 아울러 『청서필담』 등 처세훈체의 청언을 주목한 점 역시 『송천필담』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송천필담』에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그 풍도(風度)의 고상함을 품평하는 세설체 청언과 사인으로서 삶의 원칙을 추구하는 처세훈체의 아포리즘이 공존하게 되었다. 요컨대 심재는 진인적(晉人的) 풍도와 송인적(宋人的) 사의식의 두 방향에서 명대의 청언을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두 취향의 공존은 그의 심미 지향을 여실히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탈세간적 취향에 공명하는 한편으로 여전히 사인(士人)으로서의 세교(世敎)의 측면을 긍정하였다. 즉 사인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탈속적 취(趣)를 추구하였다. 요컨대 『송천필담』은 18세기 사인(士人) 관망자의 평생에 걸친 견문과 의견 그리고 취향의 집성태였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10. 7. 5.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16.

**주제어(keyword)** 심재(Simjae), 청언(cheongeon), 세설체 청언(evaluation-style cheongeon), 처세훈체 청언(edification-style cheongeon), 탈세간적 취향(unworldly taste), 송천필담(*Songcheonpildam*), 소창청기(*Sochangcheonggi*), 세설신어(*Seseolsineo*), 필주(*Pilju*), 청서필담(*Cheongseopildam*)